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 포함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새만금 인입 철도 사업 산업선·유라시아 대륙철도 검점역... 정부 설득 과제

익산시가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시는 국토교통부가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과 여수까지 연결되는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입 철도 등 2가지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익산과 여수 구간인 철도를 고속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8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고속화 사업이 반영되면서 지금까지 호남선(익산-목포) 고속화만 이뤄져 반쪽짜리 고속화라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서 앞으로 대륙철도 운행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새만금 인입 철도는 대야에서 새만

금을 잇는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미 완료된 익산-대야 구간과 함께 새만금 항만·공항과 연계체제를 구축해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 유치 촉진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산업 활성화와 익산과 새만금을 이어 철도 물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플러스터 산업선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된 점,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등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큰 상황이며 앞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과제로 남았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6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관내 사과, 배 재배 과원 29농가 12.9ha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 청정지역' 정밀 예찰

군산시, 사과·배 재배 전면적 집중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6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관내 사과, 배 재배 과원 29농가 12.9ha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이 병에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국내에는 지난 2015년 처음 발생이 확인된 뒤 지난해에는 전국 744농가 394.9ha에 피해를 줬으며 치료약이 없는 관계로 일단 발병하면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 3년 동안은 기주식물인 사과, 배 나무를 다시 재배할 수 없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어 예방이 최선의 방제방법이며 농가들은 농작업 도구를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고 과수원 출입 전, 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 외부 접촉부위는 반드시 소독약을 살포해야 한다.

소독약제는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이나 알코올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빨라 한 그루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따른다"며 "발생방지를 위해 농가의 철저한 예방지도와 정밀예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기센터는 화상병에 대한 농가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기술보급과(453-531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경제 선순환 '익산다이어트' 가입 10만명 돌파

총 발행 금액 3157억원 달성 연중 20% 지원 전국 최대 규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익산다이어트'가 가입자 10만명과 돌파하며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익산다이어트가 지난 6월 27일 기준 가입자 수 10만17천989명·총 발행금액 3천157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그동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중 20%(총전·사용 시 10%) 지원과 특별 이벤트 등으로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익산다이어트 카드는 총전(구매) 시 10% 즉시 추가적립 인센티브(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와 함께 다이로

움 충전금 결제액의 10%(월 50만원 한도)를 소비촉진지원금으로 익월 20일에 연중 지원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각종 생활비를 다이로움 카드로 사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원 혜택이 주어지며, 3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전 분기를 기준으로 익산다이어트 사용결제액 상위 30곳은 익산다이어트 충전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비촉진지원금 적립은 제외된다.

오는 7~9월까지의 3분기 소비촉진 지원금 제외대상은 마트업종 18곳(농협마트 5, 마트 13), 병원 4곳, 주유소 6곳, 기타 2곳이다.

해당 업체는 시 홈페이지, 익산다이어트 앱(착한페이) 팝업창 행정복지센터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앞서 시는 상반기 동안 '가정의 달 이벤트' 등 총 6회의 특별 이벤트를 추가 시행해 총 5천420명에게 4천62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다이어트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착한소비로 이어져 지역공동체가 강화되고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가정의 달 인종이벤트에서 익산다이어트 의견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익산다이어트 지원 혜택으로 지출 패턴이 타 시에서 익산시로 바뀌었다', '다이어트카드 덕분에 가계에 보탬이 된다' 등의 긍정적 반응의 의견을 남겼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장, 도서주민 삶의 질 개선찾아 현장방문

김임준 군산시장의 말도리 일원 등 도서현지를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사업 현장을 살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히 이날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과 김경구 의원이 함께해 도서지역의 현안 사업을 챙기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말도리(말도 명도 방축도) 지역의 주요사업은 명품 관광지 개발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말도리 섬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14km에 달하는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을 2023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 투입해 추진 중이다.

또, 명도와 방축도항 일원은 지난 2019년 선정된 총사업비 92억원의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업활동공간 개선, 경관 특화,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축도 주민들에게 용담댐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착수해 올해까지 추진 예정인 방축도

광역상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 투입으로 해저관로 3.4km를 포함한 상수관로 6.8km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통해 말도리 일원의 기반시설 조성 및 어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임준 시장은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어촌사회 유지와 해양영토수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황철호 신임 부시장 취임

군산시는 황철호 전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과장이 7월 1일자로 군산시 신임 부시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황철호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 대신 청원전체조회에서 직원들을 만난 후, 민선7기 3주년 성과발표 브리핑 참석, 시의회 방문 등 취임 첫날부터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 부시장은 "군산은 지난 1994년 첫 공직생활 시작해 16년을 근무했던 곳으로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여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며, "코로

나가 촉박한 경제위기 속에서 '군산형 일자리' 및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산업시설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자립도시 군산에서 다시 한번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소방서, 제40대 구창덕 소방서장 취임



제 40대 익산소방서장으로 구창덕 서장이 7월 1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1990년 소방에 입문하여, 전주덕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익산·남원·정읍·부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군산소방서장, 부안소방서장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으로 행정능력과 현장 대응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마한과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익산에 적합한 철저한 예방점검과 완벽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체육 인프라 확충에 탄력

군산시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12억원과 ▲금강체육공원 제1야구장 노후잔디 교체 4억원 등 상반기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과 금강체육공원 내 야구장 노후잔디 교체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경기대회 개최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이번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시와 신영대 국회의원 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등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